

세계기도정보

[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에 큰 물난리...수도 킨샤사 주민 120명 사망
 [미국] 미국대통령...동성결혼 인정법안에 서명으로 법 제정돼
 [세계] 전 세계 46개국, 코로나 확산 방지 명목으로 종교단체,성도에 물리력 행사
 [멕시코] 멕시코 초등학교에 주민 모아놓고 총격 학살...7명 사망
 [파키스탄] 파키스탄-아프간 국경서 포격 충돌...민간인 등 수십 명 사상
 [세계] 우크라이에 쏠린 눈...분쟁지역 아동만 4억 5천만
 [유럽] 쇠락하던 유럽 기독교, 회복의 5가지 징표가 보인다
 [미얀마] 표류하던 로힝야족 150여 명 미얀마군 손에... 억류중
 [포르투갈] 포르투갈 '조력자살' 합법화 눈앞...조력자살 허용하는 유럽의 네 번째 나
 라 될까
 [중국] 한국 망명 거부당한 중국 성도들, 체류 기간 번 돈 북한 사역 위해 헌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박해로 위험에 처한 아프간 기독교인 목숨 건 피신 중
 [이란] 이란 사법부, 반정부 시위대 첫 사형 집행... 국제사회 비난
 [자메이카] 자메이카, 갱단과 전쟁... 살인 급증에 비상사태 선언
 [우크라이나] 우크라 교회 지도자와 그 아들, 러시아군에 의해 고문,살해돼



- ▶파 송 :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후 원 :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개척 교회 :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기 관 :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کم스

2023.01
 멕시코에서
 온 편지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201 중보B/D 3층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무너지기 시작하는 통치체제...~

12월 18일 주일, 쿠바의 까마웨이에 있는 로베르토 목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그는 쿠바에서 드물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친구였지만, 최우수생으로 이동식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다. 아내가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에 남아있는 치아의 뿌리를 뽑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에 필요한 진통제와 항생제를 구할 수 없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쿠바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단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먹거리를 구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최근 들어 팀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감기약 및 항생제 그리고 비타민과 같은 의약품을 구입해 보내어 주고 있다. 최근 나도 잇몸을 절개하고 수술해보았기에 그 통증이 어떠한 지 잘 알고 있다. 의약품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프다.

잠시 쉬어가자...~

올 2월 첫 주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이빨이 몇 개 부러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 결국 부러진 이빨을 뽑고 그곳에 인공 뼈를 새로 이식했었다. 10월 말 제자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인공 뼈가 어떻게 아물었는지 확인하였지만, 다시 잇몸을 절개하고 새롭게 인공 뼈를 이식하며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다.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던 장로님께서 말한다: *“선교사님도 저도 이제 늙어가나 봅니다. 빨리 회복이 되지 않네요.”*

2020년 처음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몇 번에 걸쳐 재감염되면서, 피곤하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이라는 동일한 증상을 겪었다. 나를 사랑하는 스승님도, 친구도, 그리고 선배님도 나에게 쉬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쉬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어떻게 쉬는 것이 쉬는 것일까? 그러나 지금은 정말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달려온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제자반을 모집하지 않았다. 내년엔 2명의 졸업자를 배출하는 것까지 힘쓰기로 했다.

미쳤어?

12월 7일 수요일, 호세 목사의 아침 초대로 그의 집에 모였다. 요즘 호세 목사도 그리고 나도 생각이 많다. 당장 예배당 임대 계약 종료일이 이번 달 말인데, 아직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했다. 코로나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우리가 준비한 금액은 8만 6천 불인데, 사람들은 약 4십만 불 정도를 요구한다. 기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른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코로나 기간 감염된 목회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로 건축을 위해 준비한 재정을 다 사용했다. 그렇게 준비한 재정을 사용할 때쯤 현금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그 현금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준비한 현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한 것을 기뻐 받으시고, 채워 주신다고 생각했

다. 그리고 얼마나 모여지든 그만큼의 재정을 예배당 건물구입을 위해 제시할 것이라 기도했다. 이제 기도한 대로 하자!

아침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두고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둔 곳의 주인들을 한 명씩 만나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를 요구하든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주께서 이 땅을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8만 6천 불에 이곳을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드러진 기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니 처음 저에게 주신 마음대로 진행해요.” 이런 미친 소리에 호세 목사가 “아멘”한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작은 헌신, 큰 열매~

12월 16일 금요일, 오늘은 주중 보육시설이 2주간의 겨울 방학을 하는 날이다. 차차때 여선생이 아이들에게 벌써 3년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 2020년 1월에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과달라하라의 뽀로모에 앙헬라 여목사와 무료 급식소를 시작했었다. 음식을 나눠주며, 다른 한편에서는 오떡이어(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처음에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던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25명에서 30명의 아이들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각자의 날에 모였다. 그리고 지금은 40~50명의 아이들이 모인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주일에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 아이들을 통해 그들의 엄마들이 주중보육시설에 같이 모이기 시작했다. 10여 명의 부모 중 몇몇은 교회에 출석한다. 환난의 날에 *“너는 네 떡을 물 위로 던져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물 위로 던졌던 떡이 생명의 열매로 돌아왔다. 앙헬라 여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곳에서 40분 정도 산으로 걸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곳 주민 중 몇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그곳에서 3년 전에 저희가 이곳에서 했던 것과 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와 오병이어를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 몇몇 엄마들과 제자훈련을 해 볼게요. 만약 돕는 이가 준비된다면 급식소를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기도제목>

1.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당을 만날 수 있도록
2. 쿠바 로베르토 목사가 필요한 약품이 구해질 수 있도록
3. 주중보육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